

Marke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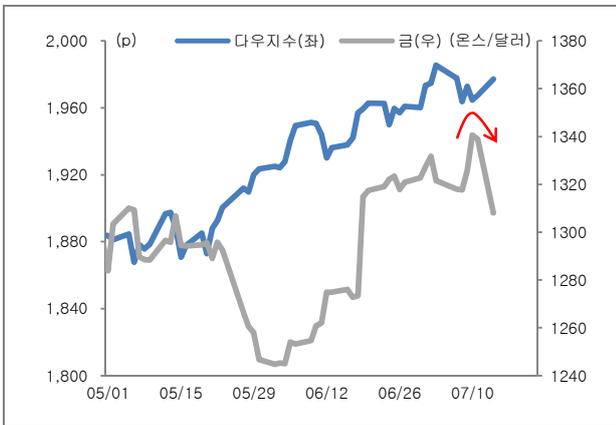
추세변화를 모색하는 주식시장

현물시장 외국인 매수세 강화

2014.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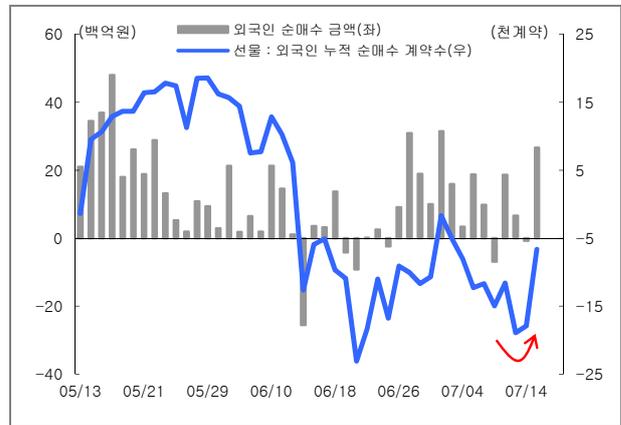
-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다우지수가 장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등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금) 간의 등락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전일 국내 현물시장에서도 2천 8백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특히 선물시장에서의 순매수 규모는 무려 1만 1천계약에 달했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1만계약 이상을 순매수한 사례가 10여 차례에 불과했던 데다, 순매수 규모도 세번째로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만하다.
-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패턴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외여건이 꾸준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불거진 포르투갈 은행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수그러들고 있는 등 시장 리스크 완화무드 속에 최근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2/4분기 실적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실제 지난주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에 이어 시티그룹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6%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발표가 미국 증시의 사상최고치 경신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Re-rating)의 주요 기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미국 증시의 상승기조 속에 위험자산(신흥국 증시)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와 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국내 현물시장 외국인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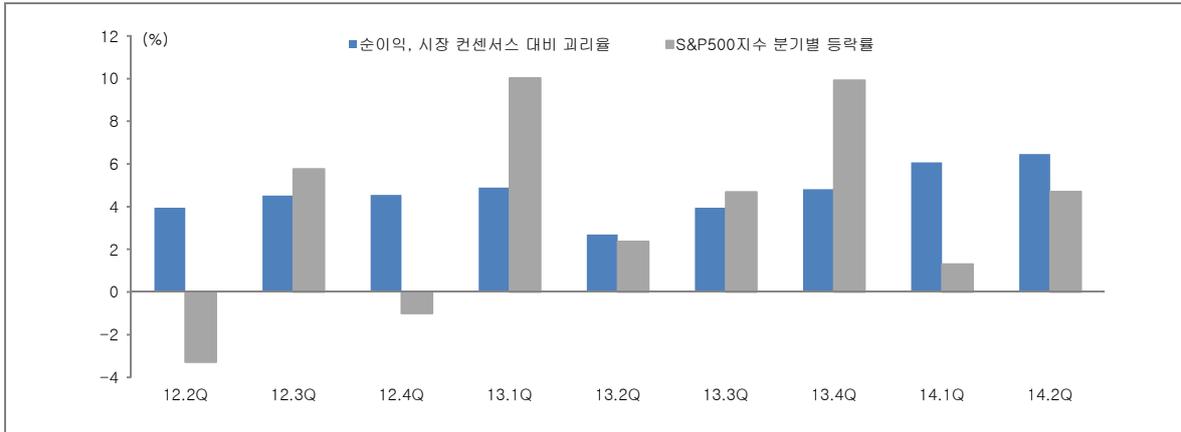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대외여건 개선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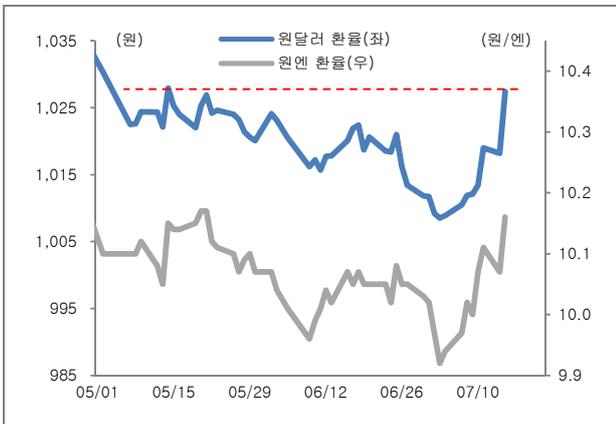
-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발표와 함께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발표 속에 2/4분기와 3/4분기 실적전망 하향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실적측면에서의 상승 모멘텀은 미진하지 만, 최근 들어 향후 펀더멘털(실적, 경기) 개선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책적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주 열린 금통위를 통해 통화정책의 변화(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분기별 미국 기업실적의 시장 컨센서스 대비 괴리율(S&P500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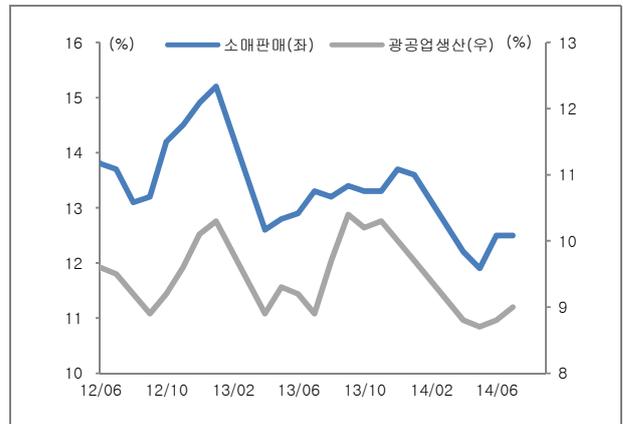
주 : 2014년 2/4분기 순이익은 7.1~14일까지 발표된 기업실적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원달러(원엔) 환율 추이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중국 소매판매와 광공업생산 추이



주 : 6월 소매판매와 광공업생산은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조짐(금통위 위원들의 시각차 등)들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경제팀이 추경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지난 6월 중반 이후 처음으로 1,020원선(원엔 환율 5월 이후 최고)으로 올라선 것도 금통위 이후 나타난 현상 중 하나이다. 그만큼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외환시장도 일부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원화강세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시각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다.

- 한편, 최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의 경우에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ROE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강화, 2)국내 자금의 장기 투자 유인, 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류변화가 아닐 수 없다(당사 리서치센터). 더욱이 이번주에 발표될 중국 경제지표(소매판매, 광공업생산, GDP 등)들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의 안정성장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한번 높여줄 경우 상해종합지수의 장단기 이평선 상향돌파와 함께 국내 증시의 추세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결국 최근 반등으로 KOSPI가 다시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심리적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양호한 대외여건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가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고점의 저항을 지나치게 의식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정부정책과 대내외의 경제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을 타진해나가는 투자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